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혼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혼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매우 놀라거나 힘들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하여서 정신이 빠질 지경에 이른다.

요약 연대표

표기

혼나다

19세기

20세기

현재

완성된 이름

혼나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매우 놀라거나 힘들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하여서 정신이 빠질 지경에 이른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혼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매우 놀라거나 힘들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하여서 정신이 빠질 지경에 이른다.

☞ 혼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혼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혼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혼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혼나다
19세기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혼나-



혼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혼나다’는 19세기부터 ‘혼나다’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말의 구성과 어원

‘혼나-’는 한자어 ‘魂’과 용언 ‘나-’의 결합이다.

📖 뜻과 쓰임

처음에는 정신이 빠지다, 즉 혼이 나가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서 꾸지람을 듣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문헌 속의 혼나다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혼나-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혼나-

📖 출처 1880 한불사전 110

용례 01

66 문헌 용례

혼나다 [魂出].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87 예수성교전서 107

용례 02

66 문헌 용례

못 사람이 마암에 혼나 썩 세던 일을 씨닷지 못ᄃᆞ문 그 마암이 완피ᄃᆞ미라.

💡 현대어 풀이

못 사람이 마음에 혼이 빠져 떡 떤던 일을 깨닫지 못함은 그 마음이 완패함이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360

용례 03

66 문헌 용례

혼나다 魂飛.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혼나-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혼나-

출처 1911 죽서루 1:12

용례 04

66 문헌 용례

춤 말이야 주네도 어려웠겠네 내 역 디단히 혼난 일이 잇네.

💡 현대어 풀이

참, 말이야 자네도 어려웠겠네, 내 역시 대단히 혼난 일이 있네.

출처 1927 동아일보 2월 26일 6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누구나 그자한테 혼나고 잠자리까지 부들부들 썰면서 드러갈 바에야 다른 려관으로 가지 우리 려관으로 오려할 사람이 잇슬것 갓지 안엇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그 해 포도도 한물 꺾긴 때 작년에 와서 혼나고 갓든 인덕이가 또 다시 포도를 따러왔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혼나다 관련 낱말

혼, 나다



- 혼명사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혼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혼나다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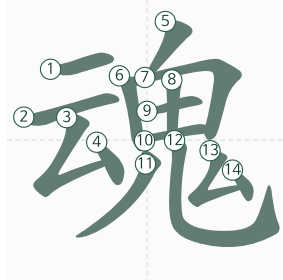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魂

뜻·음 닳 혼

총 14획 · 부수 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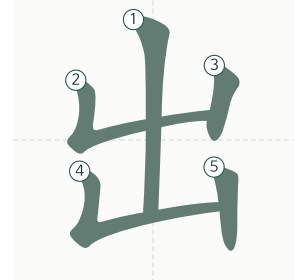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魂/

出

뜻·음 날[生] 출

총 5획 · 부수 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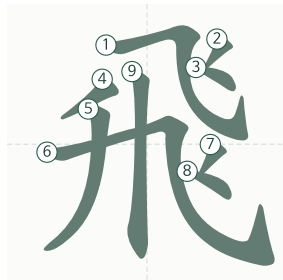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出/

飛

뜻·음 날 비

총 9획 · 부수 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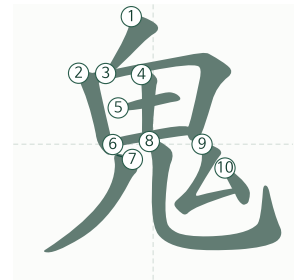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飛/

鬼

뜻·음 귀신 귀

총 10획 · 부수 鬼



hanja.wordrow.kr/한자/鬼/